

희망농촌 · 주민중심 맞춤형복지 등 성공 추진 자신



민선6기 군정방침
민선7기에도 이어

‘하 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행복한 임실’의 시대가 열렸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임실군정 지휘봉을 잡은 심 민 임실군수. 올해를 마무리하는 칼자락에서 심 군수는 “민선 7기 군수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임실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재차짐했다.

심 군수는 민선 6기에 내세운 함께하는 희망농업,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품격있는 교육문화의 4대 군정 방침을 민선 7기에도 이어가고 있다.

희망농촌은 농촌정책과 어르신들을 위한 주민중심형 맞춤형복지 확대, 임실N치즈 미래산업화, 찾아가는 교육정책, 반려동물 집적화 산업, 목적호 중심의 생태관광벨트구축 등의 성공추진을 자신하고 있다. 2018년 무술년을 마무리하는 심 민 군수를 만났다. /편집자 주



올 한해 굵직한 국가예산 확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000억원대 예산시대 이뤄

임실N치즈 축제에도
수많은 관광객 다녀와
대표축제 위상 견고히 다져

민선 7기 군수가 된 이유는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
임실군민 모두가 행복한
대통합 · 대화합 시대 열 것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혁신성장 주도할 것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조성
명품 관광벨트 속도 있게 구축

▲2018년도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군정을 시작하셨는데,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올해는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한 해입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를 이어가는 해로서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목적호 관광본격 개발과 성수산 명품관광지 조성 추진, 임실치즈 및 농식품 융합발전 사업과 축진 등을 중점 추진하여, 일자리 중심의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굵직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해입니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과 노후상수관망 정비, 풍수해생물권종합정비, 반려동물 공공화장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4000억 원대 예산시대를 이뤘으며,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1000억 원대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한 임실N치즈축제도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건실한 재정기반을 토대로 주요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며 ‘행복하고 걱정 없는 군민의 삶’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올해의 국비확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굵직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규모도 크지만, 의미 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임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9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오수를 대표적인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초로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유치해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거액의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0억 원)과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08억 원)을 비롯하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관촌, 성수 80억 원),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50억 원),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35억 원), 서이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91억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재선군수로 당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신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제게 53.5%라는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군수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 번 믿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상처와 분열이 생기지만, 이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실군민 모두가 행복한 대통합 · 대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민선 7기 임실군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구상 중이신 축제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요?

올해 축제는 기상악화와 평일이라는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전후 8만 명, 축제기간 27만 명 등 총 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인파가 몰렸으며, 107억 원의 지역경제 직접효과와 3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습니다.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차별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임실치즈축제가 있었지만, 대표축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선 6기 군수로 취임 하면서 임실N치즈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축제가 될까’ 고민하던 중 가을의 전령사 국화꽃을 생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화분 3만여 개에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을 키우도록 하여, 축제장에 전시한 것이 관광객 유치의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축제 첫 회인 2015년에는 10만 명이, 2016년에는 21만 명이 찾았고, 작년에는 무려 45만 명이 전국적으로 찾아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2019임실N치즈축제’ 개최일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기로 최종 확정됐으며, 관광객을 위한 산업관광형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조성 중인 장미공원이 마무리되면, 봄에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어 향후 100만 명이 찾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을 전개하셨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200억 원)하였고, 도시가스 공급(5.2억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43억 원을 들여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임실천 하천재해예방사업(187억 원)을 완료했으며, 임실정수장 고도처리 시설도 마쳤습니다. 특히 임실천 경관개선 사업(42억 원)에 착수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봉황인재학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80명과 150명의 수강생을 선발해 수준높은 교육의 장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양공 위상에 걸맞은 국제규모의 양공장이 건립되며, 총 51개의 과제를 발굴해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농업분야에서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20억)과 지사 체소단지 점진기지화(1억 원), ICT 스마트 팜을 연계한 온실지원(12억 원),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20억) 등 신소득 특화작물 발굴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대응한 농업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실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출발점이 될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50억)을 조성하여 임실N치즈-성수산-반려동물-목적호로 이어지는 명품 관광벨트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7기에도 제가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군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임실군이 전국이 주목하는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들 하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임실=진홍영 기자

MERRY CHRISTMAS

2018 임실 산타축제

산타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

2018. 12. 22(토) ~ 24(월)

임실치즈테마파크

산타경연대회!
내가 산타야!

18명의
산타를 찾아라!